

e-KIET 산업경제정보

우리나라 지역경쟁력의 평가와 시사점

[요 약]

- 본고에서는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23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기업부문, 산업부문, 입지부문, 정책부문으로 나누고, 지역경쟁력의 수준을 상위, 중위,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쟁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 지역경쟁력 요인 중 지역경쟁력의 상·중·하위 지역 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인과 차이를 갖는 요인 존재
 - 기업부문 :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 ‘R&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
 - 산업부문 : ‘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를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 ‘지식기반산업의 존재’는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
 - 입지부문 : ‘쾌적한 자연환경’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 ‘인프라 접근성 및 우수성’은 지역 간 커다란 격차 존재
 - 정책부문 : ‘지자체 장의 역량’을 전 지역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반면, 지역 간 평가 격차가 큰 요인은 부재
-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필요
 - 지역경쟁력 상·중·하위 지역 간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을 파악하여, 미흡한 요인에 대한 보완 필요
 -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지역경쟁력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 상위지역과의 격차완화 정책 병행추진 필요
 -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시·군·구별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 필요

□ 지역경쟁력의 정의와 구성요소

- Storper(1997)¹⁾는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을“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으로 정의함.
 - 학자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Storper의 정의에 입각하여 해석함.
- 많은 연구에 의하면,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 내지는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Gardiner 등(2004)²⁾은 지역경쟁력의 원천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 및 최종 성과 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냄 (<그림 1> 참조).
 -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지역의 환경, 의사결정 과정, 사회구조, 지역문화 등이 지역경쟁력의 최하부 원천을 구성하고, 지역경제구조 등 네 가지 요인이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함.

<표 1>

지역경쟁력의 개념

	정 의	대표 학자	이론적 기반	주요 결정요인
광의	주민의 소득수준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Storper, Reinert, Martin, Camagni	절대적 경쟁우위론	입지요인, 사회자산, 인프라, 공간정책, 노동력, 투자, 지식 등이 절대적 경쟁우위 창출
협의	지역경쟁력 = 지역생산성	Porter, Aula, Fratesi	경쟁적 다이아몬드 모델	기업환경, 클러스터, 지역전략 등이 지역혁신역량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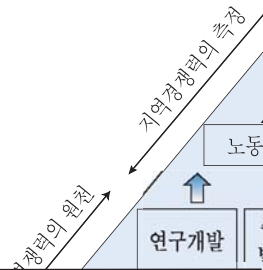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작성.

1) Storper, M., *The Regional World :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Guildford Press, 1997.

2) Gardiner, B., R. Martin and P. Tyler, “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 *Regional Studies*, Vol. 38, 9, Dec. 2004.

<그림 1>

Gardiner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인 때문에 지역경쟁력이 취약한가를 파악하여,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음.

□ 정량적 지역경쟁력 평가 후, 정성적 설문조사 추진

○ 본고에서는 Porter와 Bowes 등 기존 연구에 입각하여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40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음.

-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지역 간 경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역경쟁력의 원천을 크게 기업부문, 산업부문, 입지부문, 정책부문으로 나누고, 이 각각의 구성요소를 10개씩 선정함.

○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232개 기초지자체를 광역도시형, 인구 2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형,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그 다음, 생산성을 반영한 지표와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지표에 의거하여, 지역경쟁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표 2> 참조)하여 서열화하였음.

○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4개 유형별로 지역경쟁력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등으로 나누고, 상·중·하위 지역별로 각각 2개씩 구분하여 총 24개 지역을 선정하였음.⁵⁾

5) (1) 광역도시형 : 상위지역 - 유성구, 광주 서구, 중위지역 - 부평구, 동대문구, 하위지역 - 대구 중구, 부산 서구, (2) 거점도시형 : 상위지역 - 화성시, 천안시, 중위지역 - 군포시, 양산시, 하위지역 - 여주시, 마산시, (3) 중소도시형 : 상위지역 - 안성시, 청원군, 중위지역 - 제천시, 달성군, 하위지역 - 삼척시, 남원시, (4) 농산어촌형 : 상위지역 - 양평군, 함안군, 중위지역 - 청도군, 의령군, 하위지역 - 임실군, 장흥군

<표 2> 지역경쟁력 평가 지표 및 가중치

	세부 지표	가중치	세부 가중치
주민 생활 여건 지표	인구증가율 순위	1/4	1/4
	종사자증가율 순위	1/4	1/4
생산성 관련 지표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	1/4	1/8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순위		1/8
	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순위	1/4	1/8
	1인당 서비스업 순이익 증감 순위		1/8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 회수된 설문조사표는 총 769부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기업 종사자 50%와 공공기관 종사자 50%로 구성됨.

- 설문조사 대상지역을 지역경쟁력 수준에 따라 상위·중위·하위로 나누어, 지역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 지역별 격차가 큰 요인을 추출하였음.
- 각 문항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1~5점을 부여한 다음, 각각에 20을 곱하여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음.

□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 존재

○ 4대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지역경쟁력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지역경쟁력 요인 중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요인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평가요인이 도출됨.

<기업부문>

○ 기업부문에서는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성’, ‘기업

대표의 기업가정신’, ‘종업원 간 인화(신뢰) 정도’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표 3>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뿐 아니라, 중·하위권 지역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기업부문에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첨단기업의 입지 정도’와 ‘R&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였음.

- 그 중 ‘R&D투자 및 연구인력 정도’는 광역도시형의 경우 ‘높음’과 ‘매우 높음’을 합한 비율이 38.6%나 된 반면, 농산어촌형에서는 그 비율이 7.1%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
- 그 외에, ‘제품다양성 정도’와 ‘신제품 개발 및 성과’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격차가 약 7%포인트 이상이었음.
- 이러한 요인들은 상위지역 기준으로 60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하

<표 3> 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수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격차 정도
기업대표의 기업가정신	69.8	69.1	64.8	✓
첨단기업의 입지 정도	58.8	52.4	47.7	✓ ✓ ✓
제품다양성 정도	59.9	57.0	52.3	✓ ✓
장기적인 기업전략 보유 정도	62.9	60.9	59.1	
R&D투자 및 연구인력(양, 질) 정도	58.1	55.5	48.0	✓ ✓ ✓
신제품 개발 및 성과(제품혁신)	59.1	58.0	50.5	✓ ✓
원가절감 노력과 성과(공정혁신)	65.0	62.4	59.1	✓
마케팅 능력	61.2	60.8	58.6	
종업원 간 인화(신뢰) 정도	69.8	69.3	66.8	
노사관계의 안정성	70.0	71.2	68.5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1) ✓✓✓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10%포인트 이상 격차인 경우, ✓✓는 7~10%포인트 격차, ✓는 5~7%포인트 격차를 의미.

2) ■는 상위지역 기준의 상위 3대 요인.

위지역뿐만 아니라 상위지역에서도 향후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산업부문>

- 산업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지역 내 대표산업의 존재’, ‘산업 집적지의 존재’, ‘산업 내 선도기업의 존재’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표 4> 참조).
- 산업부문도 각 요인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평가결과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졌는데, 10개 요인 중 상·하위지역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지식기반산업의 존재’였음.
 -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존재’는 광역도시형의 경우 ‘높음’과 ‘매우 높음’을 합한 비율이 24.4%나 된 반면, 농산어촌형에서는 4.9%에 불과해 지역유형별로도 격차가 매우 컸음.
 - 그 외에, 상·하위 지역 간 격차가 7%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지역

<표 4> 산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수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격차 정도
지역 내 대표 산업의 존재	60.0	57.6	58.1	
산업 내 선도 기업의 존재	58.3	54.8	53.7	
산업집적지(클러스터)의 존재	58.7	57.3	53.6	√
산업 내 협력 네트워크의 존재	57.7	57.0	52.2	√
다양한 산업의 존재	56.8	53.8	48.1	√ √
산업 내 전후방 연관기업의 수	56.0	53.2	49.9	√
지식기반산업의 존재	56.9	50.5	46.0	√ √ √
산업 내 외국기업의 입지, 수출지향성	54.0	48.2	46.1	√ √
주변지역의 풍부한 시장수요	54.4	54.5	49.8	
컨설팅, 광고 등 서비스기업의 충분한 존재	50.5	49.0	46.2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내 다양한 산업의 존재 와 ‘ 산업 내 외국기업의 입지 및 수출지향성 ’이
있음.

<입지부문>

- 입지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 대도시와의 근접성 ’, ‘ 쾌적한 자연환경 ’, ‘ 지역에 대한 외부평판 ’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표 5>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 대도시와의 근접성 ’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아, 상위권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입지부문은 각 요인별로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평가결과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이었는데, 10개 요인 중 상·하위지역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발생한 요인은 ‘ 대도시와의 근접성 과 ‘ 인프라 접근성 및 우수성 ’이었음.
- 그 외에도 ‘ 고급노동력의 우수한 질 및 조달용이성 ’은 상·하위 지역 간 7%포인트 이상 격차가 발생하였음.

<표 5> 입지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수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격차 정도
대도시와의 근접성	73.6	74.5	56.4	✓ ✓ ✓
특수한 자원부존	51.6	50.7	50.6	
항공, 도로, IT 인프라의 접근성 및 우수성	63.9	64.3	52.5	✓ ✓ ✓
고급 노동력의 우수한 질 및 조달 용이성	58.7	58.6	51.6	✓ ✓
저렴한 생산비용 : 용지구입, 임금 등	59.3	58.9	57.2	
저렴한 생활비 등 정주여건의 우수성	59.5	60.0	60.1	
지역에 대한 외부의 평판	65.0	61.8	60.5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55.1	57.0	54.8	
주민 간 신뢰 및 유대관계	63.8	63.8	63.0	
쾌적한 자연환경	73.1	71.9	74.0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표 6>

정책부문의 지역경쟁력 요인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수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격차 정도
지자체의 독자적 산업발전 전략 존재	59.8	59.4	59.3	
지자체 장의 역량 및 동기부여	64.0	63.8	64.3	
지자체의 인프라시설(SOC)에 대한 투자	60.5	61.4	60.0	
국책사업의 유치 및 추진 여부	57.8	57.9	60.2	
산업단지 조성 및 활용	62.9	59.9	60.4	
산학연의 장비 및 시설 지원	55.7	56.4	55.0	
산학연의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	56.9	55.9	54.7	
공공기관의 행정 및 서비스 지원	63.8	64.8	65.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본조달 용이성	59.9	60.7	59.3	
기업에 대한 조세, 보조금 지원	57.7	57.3	59.2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정책부문>

- 정책부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의 경우 ‘ 지자체 장의 역량 및 동기부여 ’, ‘ 공공기관의 행정 및 서비스지원 ’, ‘ 산업단지 조성 및 활용 ’ 등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표 6> 참조).
- 정책부문에 대한 평가는 10개 요인 중 상·하위지역 간 격차가 7%포인트 이상 나는 요인이 한 개도 없었음.
 - 이는 현재의 지역정책이 기초지자체의 지역경쟁력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는 내생적 요인, 미래는 외생적 요인 중시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현재의 지역경쟁력 격차는 외부적 여건으로 주어지는 입지나 정책적 차이보다는, 그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

지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의 경쟁력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참조).

○ 그러나 앞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이 무엇인지에 관해 순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정책부문과 산업부문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표 8> 참조).

- 이는 미래에는 입지처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이나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부문보다는, 외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역 관련 정책 및 산업부문의 경쟁력 요소 강화 지원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표 7> 현재의 지역경쟁력 부문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 점수, %포인트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격차 정도
기업	63.5	61.7	57.6	5.9
산업	56.3	53.6	50.4	5.9
입지	62.4	62.2	58.1	4.3
정책	59.9	59.8	59.8	0.1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표 8> 미래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문

단위 : %, 우선순위 가중종합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기업	22.9	23.3	22.7
산업	26.0	26.2	27.4
입지	23.6	24.0	23.8
정책	27.5	26.4	26.0
계	100.0	100.0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주 : 중요순서별로 순위를 정한 것을 1위에 4점, 2위에 3점, 3위에 2점, 4위에 1점을 부여한 다음 각 점수를 합하여 부문별 비중을 구함.

□ 지역경쟁력의 공통요인 개선 노력과 함께, 차별화 요인도 고려하는 지역정책 필요

- 지역경쟁력의 상위, 중위, 하위지역 간에는 기존의 Porter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공통요인과 차별화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통요인은 지역경쟁력 상위지역에서 고평가하는 요인으로, 중위, 하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인 반면,
- 차별화요인은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에 격차가 큰 요인으로, 향후 중위 및 하위지역이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통요인의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차별화요인도 동시에 파악하여 보완해 주어야 할 것임.
- 향후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군·구 차원의 정책추진이 필요함.
-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지역 내에서 저평가를 받은 요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함께, 상위지역과의 격차가 큰 요인을 중심으로 한 격차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각 지자체별로 정성적인 측면의 지역경쟁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엇이 지역경쟁력 약화요인인지를 파악하여 보완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을 확인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16개 시·도 내지는 5+2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고려되었던 지역정책들이 향후에는 기초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강한 역량을 가진 기초지자체 없이는 시·도나 광역경제권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지역경쟁력을 반영한 장기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함.
- 여기에는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지여건 개선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김 정 홍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kimjh@kiet.re.kr
(02-3299-3039)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